
베트남/미얀마 출장 복명서

2012. 7

목 차

I	해외출장 개요	1
	1. 출장개요	1
	2. 세부일정	2
II	주요 수행내용	3
	1. 베트남	3
	가. 베트남 건설공무원교육원 업무협의	3
	2. 미얀마	5
	가. 미얀마 건설 및 인프라분야 주요 장관 면담 참석	5
	나. 한-미얀마 협력의 밤 참석	6
	다. 양곤시 주지사 및 시장 면담	7
III	참고자료	15
	1. 미얀마 개요	15

I. 해외출장 개요

1. 출장개요

□ 목적

- 베트남 건설공무원교육원(Academy of Managers for Construction and Cities, AMC)과 공무원 연수과정 관련 업무협의
- 한-미얀마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양곤시 현대화 계획 마스터플랜 구축사업(KOICA 지원사업)관련 양곤시 정부와 회의

□ 출장국가 및 주요방문기관

- 베트남(하노이)
 - 베트남 건설부
 - KOICA 베트남 사무소 방문
 - 베트남 AMC
- 미얀마(양곤, 네이피도)
 - 미얀마 주한 대사 면담
 - 미얀마 건설부, 교통부, 국가경제개발계획부 장관 등 건설 및 인프라분야 주요 장관 면담
 - 미얀마 양곤시장 면담

□ 출장 명단

소속	직급	성명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연구위원	조진철

□ 출장기간: 2012.6.15.(금) ~ 6.22(금), 6박 8일

2. 세부일정

일정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6월 15일 (금)	인천	하노이	- (10:05) 인천 출발 - (12:35) 하노이 도착 - (16:00~17:00) 베트남 건설부와 업무협의
6월 16일 (토)			- (10:00~12:00) KOICA와 업무협의
6월 17일 (일)			
6월 18일 (월)	하노이	양곤	- (10:00~12:00) 베트남AMC와 업무협의 - (16:35) 하노이 출발 - (18:10) 양곤 도착
6월 19일 (화)	양곤	네이피도	- (12:00~14:00) 미얀마 대사주최 오찬 - (14:00~19:00) 양곤->네이피도 이동 - (19:00~21:00) 미얀마 진출기업 간담회
6월 20일 (수)	네이피도	양곤	- (10:00~12:00) 건설부, 교통부, 국가경제개발계획부 장관 면담 - (14:00~19:00) 네이피도->양곤 이동
6월 21일 (목)	양곤	방콕	- (10:00~12:00) 양곤시 시장 겸 개발위원회 위원장 면담 - (14:00~15:00) 양곤시 주지사 면담 - (19:45) 양곤 출발 - (21:40) 방콕 도착 - (23:45) 방콕 출발
6월 22일 (금)		인천	- (07:05) 인천 도착

II. 주요 수행내용

1. 베트남

1) 베트남 건설공무원교육원(Academy of Managers for Construction and Cities, AMC)과 업무 협의

- 일시 : 2012년 6월 15일(금), 15:00 ~
- 장소 : 하노이, AMC 부원장실
- 주요참석자
 - Msc. Bui Duc Hung (AMC 원장), Dr. Pham Van Bo (AMC 부원장), 조진철 (GDPC 부소장)
- 주요 논의사항
 - Dr. Pham Van Bo (AMC 부원장)와의 업무 협의
 - 2012년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국토연구원에서 주택 및 부동산 관리 정책 과정을 수행하기로 합의
 - Introduction of Participant를 City Report from Participant로 바꿈. (참석자 각각의 도시에 대해 22명이 간략히 소개)
 - 각각의 Lecture별 Summary를 알려주길 요청
 - Field Trip을 선택할 수 있도록 2개의 대안을 제시해 주길 요청
 - ※ a. 부산경남노선(부산진해 자유경제구역, 재개발지, 아파트단지)
 - b. 충청전라노선을 제안(세종시, 새만금사업지, 전북혁신도시)
 - 29일 강의, Management Model of Apartment 중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해결 모델 제시에 대한 내용 요청
 - 증명서(수료증) 발급에 대한 요청
 - 예산관련 협의
 - ※ 숙박비는 1인당 \$65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2인 1실의 residence hotel선호 식비는 1인당 1일 \$60로 책정하길 요망



AMC 부원장(Dr. Pham Van Bo)

- Msc. Bui Duc Hung (AMC 원장)과 업무 협의
 - 국토연구원과 AMC간 교육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견 제시(AMC 원장)
 - 금년 교육과정(8.20~31)에 참여하여 마지막 날 MOU Ceremony에 참여하기로 합의
 - 이번 과정 이후에도 도시개발 및 관리 관련 과정을 추후 1-2회 개최하자고 의견 제시(AMC 원장)



AMC 원장 (Msc. Bui Duc Hung)

2. 미얀마

1) 미얀마 건설 및 인프라분야 주요 장관 면담 참석

- 일시 : 2012년 6월 20(수)
- 장소 : 미얀마, 네이피도 국가경제개발계획부 회의실
- 주요참석자
 - 우리측 : 한만희 차관, 해외건설지원과장 외 1 (국토부),
참사관(미얀마 대사관), 해외건설협회 부회장(해건협),
한국종합Eng, 제일Eng, 다산 컨설턴트 등
 - 미얀마측 : Aung Naing Oo(국가경제개발계획부) 등 관계자 등 10여명
- 주요 논의사항
 - 국토종합개발협력 위원회 설치를 제안
 - 연내 국토연구원을 통한 초청연수를 제안
 - 미얀마 측 관계자는 도시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며, 도시 개발을 위해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거주 서비스시설을 포함한 도시개발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미얀마의 도로, 공항, 항만 등 교통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건설부와 교통부를 방문하여 양국의 한따와디 공항 (제2 양곤 신공항) 건설, 띠라와 심해항만 건설 및 물류·해운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
 - 국가기획경제개발부와는 미얀마 국가개발계획 및 양곤시 현대화 계획 수립에 있어 국토·도시 및 국가기반시설 총괄부처로서 우리의 정책경험을 전수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



국가경제개발계획부 국장 면담

2) 한-미얀마 협력의 밤 참석

- 일시 : 2012년 6월 20일(수) 19:00~21:00
- 장소 : 미얀마, Karaweik Palace
- 주요참석자
 - 우리측 : 한만희 차관, 해외건설지원과장 외 1 (국토부),
참사관(미얀마 대사관), 해외건설협회 부회장(해건협),
한국종합Eng, 제일Eng, 다산 컨설턴트 등
 - 미얀마측 : 미얀마 건설협회 킨 수웨 회장 등 25명

○ 행사 일정

시간	프로그램	비고
19:00-19:05	개회사	해외건설협회 부회장
19:05-19:10	환영사	미얀마건설협회 회장
19:10-19:15	축 사	대사
19:15-19:20	축 사	국토해양부 차관
19:20-19:35	발표 1 : 전략적 파트너 한국건설기업 Korean Contractors as Your Strategic Partner	해외건설협회
19:35-19:50	세계속의 한국 건설사	미얀마건설협회
19:50-20:00	발표 2 : 미얀마 건설협력 Partnership with Myanmar Contractors	해외건설협회
20:00-20:10	4대강 홍보 비디오 시청	
20:10-	만찬 및 미얀마 전통무용 감상	뷔페

3) 양곤시 주지사 및 시장 면담

○ 일시 : 2012년 6월 21일(목) 10:00~15:00

○ 장소 : 미얀마, 양곤 주청사

○ 주요참석자

- 우리측 : 한만희 차관, 해외건설지원과장 외 1 (국토부),
참사관(미얀마 대사관), 해외건설협회 부회장(해건협),
한국종합Eng, 제일Eng, 다산 컨설턴트 등

- 미얀마측 : 양곤 주지사 등 10명

○ 주요 논의사항

- 양곤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공공시설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의
기초가 될 양곤시 현대화계획 수립에 관해 토의
- 우리기업에 BOT 방식의 상수도 프로젝트 공동 참여 및 타당성
조사 지원 요청



양곤시 주지사 및 시장 면담

Ⅲ. 참고자료

1. 미얀마 개관

○ 기본현황

국명	미얀마 연방(구 버마)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위치	동남아시아 인고차이나 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에 위치, 동부는 태국 및 라오스, 북부는 중국, 서부는 인도 및 방글라데시와 접경
면적	373,578 km ² (40위, 한반도의 약 3.5배)
기후	국토가 남북으로 길어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고온다습한 열대몬순 기후이나 북부지방은 고온건조한 아열대성 건조기후 만달레이 이북 : 온대동계 건조기후 북쪽 산악지대 : 겨울에 서리도 내림 강우량 : 연평균 2,513mm(우기 : 5월말~9월 중순)
수도	네피도(Nay Pyi Taw, 인구 99만명)
면적/인구	면적 : 676,577 km ² (한반도의 약 3배) 인구 : 6,240만 명(24위, '12년 추정치)
주요도시	양곤(434만): 2005년 11월 까지 수도였음 현 경제 중심지 만달레이(100만): 제2의 도시로 중북부 경제 중심지 네피도(92만): 2005년 11월부터 행정부가 이전한 새로운 수도
민족(인종)	미얀마족 70% 소수족 25%(카친, 카렌, 등), 기타 5%(중국, 인도계 등)
시간대	우리시간 -205
언어	미얀마어(공용어), 중국어, 태국어 일부지역 사용
종교	불교(89.4%), 기독교(4.9%), 이슬람교(3.9%), 토속신앙(1.2%), 힌두교(0.5%)
독립일	1948년 1월 4일(영국으로부터 독립)
정치현황	국가원수 : 떤 세인(Thein Sein) 대통령 -취임일:2011년 4월 1일(5년 임기-연임 가능) 부통령 : 띠 아웅 민우(Tin Aung Myint Oo) 사인 마욱 칸(Dr. Sai Mauk Khan) -취임일 : 2011년 4월 1일

○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5.5('11년 추정치)
국내총생산(GDP)	545억불('11년 추정치)
1인당 GDP	1,127('11년 추정치)
물가상승률	4.2%('11년 추정치)
화폐단위	미얀마 짜트(Kyat)
환율	US \$1 = Kt ('11.9월 기준, 시장환율)
외채	118.14억불('11년 추정치)
외환보유	외환보유고 : 79.0억불('11년 추정치)
산업구조	산업구조 : 1차산업(39.9%), 2차산업(22.6%), 3차산업(37.5%)
교역규모	총교역 : 200.2억불('11년 추정치) 수출 : 98.9억불 (철강제품, 산업기계, 직물, 석유화학제품 등) 수입 : 101.3억불 (광물성연료, 섬유제품, 목재, 농수산물 등)
교역품	주요수출품 : 천연가스, 목재류, 콩류, 섬유류, 수산물 주요수입품 : 기계류, 운송장비, 정유, 철강 및 금속제품
주요부존자원	석유, 천연가스, 납, 아연

*자료 : ADB('2012.4); IMF(2012.5).

○ 미얀마 역사

고대	(BC 5세기 - AD11세기 중반)	티베트 방면에서 티베트 및 버마어를 사용하는 제부족들이 남하하여 1044년까지 할거 BC 480년경 미얀마에 진출한 몬족은 BC3세기에 번째 왕국인 수반나부미(황금의 땅) 건설 몬족 : 중앙아시아로부터 미얀마에 이주한 최초의 종족으로 언어상 '몬-크메르어족'에 속하며, 현재 태국-캄보디아 근처에 주로 거주
중세	바간(Bagan)왕조 (1056-1287)	1056년 아노아타(Anawrahta)왕(1044-1077)이 몬족을 정복하고 중부 미얀마를 장악하여 바간 왕국을 창건함으로써, 버마족에 의한 최초의 통일 이룩 아노아타 왕은 Theravada불교(상좌부불교)로 개종하여 미얀마 불교의 기틀 완성 몬족의 불교는 Thereavada불교라 하여 미얀마 불교의 주류 형성
	몽고의 침공과 분열(1287-1531)	1287년 쿠빌라이칸의 몽고군 침공으로 바간왕조 붕괴 몽고군은 1299년 퇴각 이후 200년간 산 버마, 몬족 등 각 소수족 국가가 병존하면서 패권쟁탈을 위한 각축전 전개 몬족과 산족 간 40년 전쟁(1385-1425) 등
근대	영국 일본 식민시대(1886-1948)	인도 내 영국 세력과 충돌, 제1차(1824-26), 2차(1852), 3차 전쟁(1885)를 거치면서 1886년 영국령 인도에 편입 1937년 4월 영국의회가 개정 버마통치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버마는 인도에서 분리되어 직할식민지와 자치령의 중간적 법적 지위 획득 버마 독립을 위해 영국군 및 일본군과의 무장투쟁 과정 중 영웅이 된 아웅산 장군이 1947년 7월 각료회의 중 암살된 후 우누가 임시정부의 총리로 등장
	버마 독립과 우누의 사회주의(1948-1962)	1948년 1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버마는 영국 연방에서도 탈퇴 우누 총리는 1962년 3월 네윈 총사령관의 쿠데타에 의해 권좌에서 물러날 때까지 10여 년간 재임하면서 신생국의 기반을 닦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산당과 소수민족의 반란에 따른 내전 등으로 집권 기간 중 많은 어려움에 봉착
현대	버마식 사회주의(1962-1988)	1962년 3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네윈은 1963년 1월 마르크스주의와 불교적 정신가치를 접목시킨 이론인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발표하여 '버마식 사회주의' 체계의 기본 이념으로 정립 버마식 사회주의 경제의 실패 등에 따른 국민적 불만은 1988년 3월부터 수개월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유발하였고, 군-민 충돌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무정부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네윈은 1988년 7월 사임
	민주화 운동과 군사정부(SLORC-SPDC)의 등장(1988-2002)	1988년 3월부터 9월까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민중의 반정부 시위와 네윈의 사임 시위대와 군의 충돌로 인한 유혈사태, 그 후의 군부 쿠데타에 이르는 일련의 민주화 진통 기간을 일명 '랑군의 봄'이라 명명 1988년 4월 아웅산 수지 여사는 모친 간병 차 귀국하였다가 반정부 민주화 운동 전면에 나서게 되었고, 버마의 독립영웅인 아웅산 장군의 딸이라는 배경 등에 힘입어 국민적 지지 획득 1988년 9월 18일 네윈의 막후 조종에 의한 소몽(Saw Maung) 국방장관 겸 총사령관 주도의 친위 쿠데타 발생으로 SLORC(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 군사정부 등장 SLORC은 1989년 6월 국호를 '미얀마 연방'(Union of Myanmar)으로 변경(미얀마는 '결속을 의미) 1991년 10월 14일 아웅산 수지 여사 199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 군정은 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해 2010년 11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가택연금 조치 1997년 7월 제 30차 ASEAN 외교장관회의(말레이시아)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등과 함께 ASEAN 가입 2002년 12월 네윈 사망

군사정부의 민주화 7단계 로드맵 추진(2003- 2011.3 완료)	2003년 8월 탄쇄 SPDC 의장은 겸직하던 총리직을 사임하고 킨윤 SPDC 제1서기를 후임으로 임명하였으며 킨윤 총리는 2003년 8월 민주화 7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04년 5월 로드맵에 따른 국민회의(National Convention) 1차 회의를 개최(각 민족 각계 계층 참석자 1천여 명 대부분을 정부가 지명) 2004년 10월 킨윤 총리가 축출되고 SPDC 제1서기 소윈(Soe Win)이 총리 취임 2005년 11월 네피도 행정수도 이전 개시 2006년 2월 완료 2007년 10월 소윈 총리 지병으로 사망 때인 세인 SPDC 1서기가 총리 취임 2011년 2월 연방의회를 개원하여 3명의 부통령을 선출하였으며 하원 출신 부통령인 떼인 세인 총리 겸 USDP 당수를 민선 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 2011년 3월 신정부 주요 인사를 확정하는 일련의 대통령령을 공포함으로써 본격적인 신정부 활동 개시
--	---

○ 미얀마 정치 경제

- 2011년 1월 31일 연방의회가 개원되고, 이어 3월 30일 신정부가 출범함으로써 7단계 민주화 로드맵이 일단 성공적으로 이행된바, 이전에는 SPDC를 정점으로 하는 관된 군사 통치가 통제해 왔으나, 군부와 독립적인 행정부가 구성됨에 따라 통치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 아울러 여당 의원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점유하고 있지만 야당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방 및 지방 의회가 활동을 개시하면서 투명성 및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근본적인 체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군 총사령관이 의원의 25%를 군 인사로 임명하고, 국방장관 등 3개 부처 장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등 군부의 정치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유사시 확대된 군의 역할이 헌법에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당분간 군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막후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탄쇄 전 SPDC의장의 역할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현재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기존 군정 지도부들간의 권력 투쟁이 한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국 운영의 변수가 상존

- 군정은 총선이 실시된 직후 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한 가택연금 시한이 만료되자,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지 않고 2010년 11월 13일 수지 여사를 가택연금에서 해제
- 과거 가택연금 해제 때와는 달리 수지 여사의 자유로운 활동을 조건 없이 허용하여, 수지 여사는 대내외 인사들과 활발히 접촉
- 군정 시절에도 간헐적으로 사면 조치가 있었으나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2천여명을 상회하는 정치범 또는 양심수들이 아직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요 야당 및 국제사회는 정치범 석방을 계속 요청
- 2008년 5월 23일 이라와디주 및 양곤을 강타한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막대한 피해(사망 84,537명, 실종 53,836명, 재산 피해 40억 불 추정)가 발생함에 따라 5월 25일 반기문 UN 사무총장 참석 하에 국제서약회의가 양곤에서 개최되는 등 국제사회가 폐쇄적인 미얀마를 대대적으로 긴급 지원하는 계기 마련
- 2009년 말 Gambari 특사가 Darfur 지역을 담당하게 되면서 미얀마 특사직을 사임한바, 2010년 초부터는 Vijay Nambiar 사무총장 비서실장이 미얀마 문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총선이 실시되고 아웅산 수지 여사가 가택연금에서 해제된 이후 2010년 11월 말 미얀마를 처음 방문(수지 여사도 면담)
- 2011년 초 의회가 개원되고 민선정부 대통령이 선출되자 반총장은 이를 환영하며 앞으로의 협력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미얀마의 정치 상황이 개선될 경우 반총장의 추가 방문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미얀마 대외관계

- 대외정책 기조

- 중립적 입장에서 독립 자주 외교 추진(평화 공존 5원칙)
- 지정학적 이유로 전통적으로 대중국 및 인도관계를 중시 최근 2010년 10월 신정부 수립 이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 중
- 1997년 ASEAN 가입 이후 ASEAN+3 국가간 우호협력관계 강화
- 국제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인권문제 등 국내정치 상황이 제약 요소로 작용

- 주요국가와의 관계

· 對 중 국

중국은 인도양 진출 등에 대한 지정학적 고려, 미얀마 내 원유 및 가스 확보, 대 ASEAN 관계 강화, 중국계 보호, 중국 남서부 지방의 시장 확보 차원에서 미얀마와 긴밀한 관계 유지

미얀마는 중국에 대해 국제무대에서의 방과제 역할, 경제적 지원, 농수산물 시장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서방의 제재가 계속되면서 중국에 계속 경도 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지나친 의존에 대해 내심 우려

· 對 ASEAN

1997년 7월 미얀마는 ASEAN 가입 이래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ASEAN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회원국들과의 정상외교 추진
ASEAN의 입장이 어려워진 것을 고려하여 2006년 의장국 수임을 포기하였으나 2014년에 의장국 수임 추진 중

ASEAN 국가들은 서방의 제재는 효과가 없고 서민 고통만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기본적으로는 건설적 협력 기치 하에 내정 불간섭 입장을 견지해 오면서도 국가별로는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는 국가가 있었으나, 최근의 정치 일정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 對 인 도

인도는 1988년 이해 미얀마 군사정권과 관계를 단절해왔으나, 2000년 11월 마웅예 부의장 방문을 계기로 실리 위주 정책을 추진, 특히 2006년 12월 Thura Shwe Mann 장군 인도 방문 이후 인도-미얀마 국경 내 반군세력 소탕 차원에서 전략적 군사 협력 강화 중

인도는 미얀마의 천연가스 개발, 파이프라인 가설을 천연가스 수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동북부 내륙지방의 인도양으로의 통로 확보를 위해 미얀마 라카인주에 투자 집중

미얀마는 인도와 상호 국경을 인접, 전략적 중요성 및 경제적 보완 관계 보유, 중국과의 균형 유지에도 노력

· 對 일 본

군사정권 수립 이전 대미얀마 최대 지원국(30억 불 차관 제공)이었으나 미국 등 서방의 대미얀마 제재에 대해 적절히 보조를 맞추면서도 적극적인 제재에는 불참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미얀마에 대해 강경 입장을 취해 왔으나, 정권 창출 이후에는 과거 정권의 정책 기조를 유지 중

미얀마 내에서 중국의 독점적 지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지원을 계속 하는 한편 주요 인사의 방일 초청을 통해 주요 인사와의 유대 관계 모색과 실무급 연수도 추진 중

· 對 미 국

미국은 1997년 5월 20일 이래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으로 미얀마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 중

2007년 민주화 시위 후 대 미얀마 경제제재 강화

2008년 사이클론 나르기스 재난 복구에 미국은 총 7,400만 불 지원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수지 여사가 제재 해제에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미국의 대 미얀마 제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도적 분야에 대한 지원은 확대 중이며 대 미얀마 특사를 임명하는 등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표명

○ 경제 동향

- 경제구조 및 특징

- 1998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였으나 사회주의 전통이 장하게 남아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투명성 저조
- 2011년 민선정부 출범을 계기로 공기업 민영화, 수입 자유화, 국채 발행 등 경제 각 분야에서 개혁·개방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으며, 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2010년 재정지출 확대,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 지속 등으로, 최근 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에서 자금차입을 통한 정부 지출이 지속될 전망
- 정부 통계상 재정적자는 4%대이나, 실제는 약 30%대로 추정
- 재정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세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개인근로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가 세금 납부를 회피
- 한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보건, 교육부문의 정부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나, 국방부문의 과다지출 및 비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으로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은 지속될 전망

- 대외 경제정책

- 미얀마는 외환부족의 타개를 대외경제정책 수립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어 책도 이에 맞추어 시행되고 있는 실정
- 1997년부터 강화된 수입규제 조치는 지금까지 지속
- 정상무역 관련 외환취급 가능 은행은 MFTB(Myanmar Foreign Trade Bank), MCB(Myanmar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등 국영은행 두 곳으로 한정
- 수입 시 건별로 허가 필요 및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만이 수입 허용
- 수출 시 수출대금의 10%를 수출세라는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른 국가와 판이하게 다른 미얀마의 독특한 제도

- 수출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어 일종의 혜택을 받던 봉제업체를 중심으로 한 CMP(Cutting, Making, Packing)업체도 2003년 10월부터 수출세 납부
-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 1998년 시장경제체제 전환 후,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기초적인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였으나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해 외국인투자 지원정책이 타 국가에 비해 미흡
 - 서방의 경제체제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거의 중단된 외국인 투자는 최근 전력, 석유가스 등 일부 분야에 유입 중이나 미얀마 정부 경제운용에 대한 불신, 열악한 인프라,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 등은 투자진출 장애 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민선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인접국의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도 경제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
 - 1988년 외국인 투자법 이후, 23년 만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 특구법(더웨이 경제특구법 포함)을 새로 제정하여 외국이 투자 유인 추진 중
- 교역동향
 - 최근 3년간 미얀마의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있는 반면, 수입은 정부의 수입 억제정책으로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무역 수지는 흑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당분간 이런 추세는 지속될 전망
 - 회계연도 기준 2009-10년도 미얀마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약 11.5% 증가한 68.8억 불, 수입은 8.2% 감소한 38.1억 불을 기록
 - 주요 수출품 : 천연가스, 티크 및 경목, 콩류, 의류, 수산물 등
 - 주요 수입품 : 기계 및 운송장비, 정유, 비금속 제품, 전기기계, 식물 등
 - 미얀마의 교역은 해상으로는 싱가포르, 육상으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태국, 중국, 인도 등이 큰 비중을 차지
 - 주요 수출국 : 태국, 인도, 중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 주요 수입국 : 싱가포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2. 한-미얀마 관계 현황

○ 한-미얀마 간 주요 이슈

- 1975년 한국과 외교 관계 수립
- 한국, 북한과 중립을 유지했으나 1983년 전두환 대통령 미얀마 공식 방문 시 북한의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로 한국 외교사절 17명이 순국한 사건 이후 북한과 단교해 오다가 2007년 4월 26일부로 외교 관계 정상화
- 2011년 이후 기준, 한국과 미얀마 교역규모는 9.65억불 규모이며, 이 중 수출은 6.06억불, 수입은 2.98억불을 기록(4대 수입국: 중국, 싱가포르, 태국, 한국)
- 2009년 5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개최 시 Thein Sein 총리가 한국을 방문 하여 정상회담 참가
- 대우인터네셔널(시공사 : 현대중공업)이 현재 미얀마 북서부 해상에서 천연가스 개발 사업 추진 중
- 2000년 10월 광구 개발권을 획득하여 개방 중이며, 상업생산은 2013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으로 판매될 예정(한국 59.5%, 인도 25.5%, 미얀마 15% 지분 보유)
- 2002년 말 방영된 ‘가을동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 TV 드라마 열풍이 거세며, 현재 미얀마 TV에서 매주 방영되는 한국 드라마는 4~5편에 이릅니다

○ 우리정부의 對 미얀마 정책

- (기본방향) 인권상황 개선 및 민주화 촉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동참
- (다자차원 인권외교) ① ‘98년이래 매년 UN총회 미얀마인권결의안에 아시아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② UN 사무총장 중재노력지지, ③ ARF 등 다자무대 논의시 아웅산 수지 석방, 총선공정실시 등 민주화 촉구
- (양자관계 수위 조절) ① 외교장관급 이상 고위인사교류 자제(외교차관보/국장급 채널 유지), ② ‘05년 이래 EDCF 유상원조 승인 중단 (단, 인도적 분야 무상 원조는 유지) 등

- '09.6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미얀마 양자회담 시 대통령께서 직접 미얀마 인권상황 및 민주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 전달
- (최근동향) 자유화 조치가 단행되자, 2011년 대미얀마 해외직접투자가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하였으며, 협력 잠재력과 총선 후 정치상황 가능성을 감안, 협력 활성화 기반 조성 노력 전개
- 한-미얀마 경제포럼 개최('10.9), 미얀마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갱신('10.11), 외교관,관용 여권 비자면제 협정 서명('11.1) 등
- 『정보통신기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을 지원하기로 하여 무상원조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도 적극 검토 중
- (향후계획) 對미얀마 관계개선은 미얀마 민주화의 진전 여부, 대북 안보리결의 준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 미얀마 정부의 개선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 고위급 인사교류 활성화, 유상원조 (EDCF) 재개, 무상원조 중점지원국 신규 지정 등 추진
- '12.5월 이명박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 이후, 무상원조 규모 4배 확대 지원 발표

○ 미얀마측의 對 한국관

- 남북한 당사자 관련 국제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불개입 불표명 원칙
- 남북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우리의 포용정책 적극지지
- 한국의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
- 미얀마측은 우리의 국제기구에의 입후보 지지요청에 적극 협조, 지지
- 유엔경제이사회 이사국 입후보지지, 남북 정상회담 관련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 외교 관계 및 주요인사 교류

- 외교관계

- 1961. 8.10. 영사관계 수립
- 1962. 9. 7. 총영사관 개설
- 1975. 5.16. 외교관계 수립, 대사관 승격
- 1975.10.30 초대 주한 버마 대사(일본 상주) 신임장 제정
- 1989. 3. 주한 상주 대사관 개설
- 2005. 7. U Myo Lwin 대사(제8대) 부임
- 2011. 3. 현. 김해용 대사(제13대) 부임

- 주요인사 교류

· 주요인사 미얀마 방문

- 2003.11. 한준호 중소기업특별위원장
- 2003.12. 곽결호 환경부차관(아세안+3 환경장관회의)
- 2005. 4. 조환익 산자부차관(한 미얀마 자원협력위 TOR 서명)
- 2005. 6. 송민순 외교보차관보(한 ASEAN 대화)
- 2007. 2. 이재훈 산자부차관(한미얀마 자원협력위)
- 2007. 5.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 정동영 서울시 중구청장
- 2007. 9. 강교식 해외건설협회 부회장
- 2008. 1.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
- 2008. 5. 김성한 외교부 2차관(사이클론 국제서약회의)
- 2012. 5. 이명박 대통령

- 미얀마 인사 방향

- 2005. 5. U Nyan Win 외교부장관(정부혁신 세계포럼)
- 2005. 9. Bring-Gen. Aung Thein Lin, 양곤시장(서울시 주최 국제행사 참석)
- 2006. 3. Thura Aye Myint, Bring-Gen 체육부장관(국가올림픽위원회 회의 참석)
- 2006. 9. Maj-Gen, Maung Oo 내무부장관(정부혁신포럼 참석)
- 2006.11. Maj-Gen, Aung Min 철도교통부장관(UNESCAP 회의 참석)
- 2008. 6. U Hla Tun 재무부장관(ASEM 재무장관회의)
- 2003. 9. Vice Admiral Soe Thane 공업 2부장관(직업훈련원 관련 공무원 연수)

- 2009. 6. U Thein Sein 총리(한-아세안정상회의)
- 2009. 6. U Soe Tha 국가기획경제발전부 장관(제1차 동아시아기후포럼 참석)
- 2010. 5. U Nyan Win 외교부 장관
- 2010. 5. U Thein Aung 산림부 장관
- 2010. 6. U Aye Myint 스포츠부 장관
- 2010. 9. U Htay Oo 농업부 장관

- 협정 및 조약체결 현황

- 1964. 6. 17. 무역 협정('67. 9. 20. 협정 개정)
- 1972. 1. 뉴스 교환 협정
- 1978. 1. 28. 항공협정
- 1999. 7. 임업약정 체결
- 2002. 2.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 2003. 무역공동위 설치 MOU 문안 합의(MOU 미서명)
- 2005. 4. 한미얀마 자원협력위 TOR 서명(약곤)
- 2009. 4. 한미얀마 외교부간 정책협의회 설치 MOU 서명(서울)
- 2010. 12. 한미얀마 외교관,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서명(약곤)

○ 미얀마 건설시장 진출현황

- 건설시장 동향
 - 2011. 4월 민간정부 출범 이후 도로, 철도, 항구 등 인프라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경제개혁 및 개방조치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 급증
 - 네피도, 만달레이, 양곤 등 주요도시와 델라와, 다웨이, 짜옥퍄 등 경제특구 중심 건설시장 활성화 추세
 - 2013년 동남아시아게임 개최를 위해 주요도시의 도로, 공항 등 인프라 및 호텔 건설 추진 중

- 정부발주 공사는 예산 부족으로 외국기업이 참여할 규모의 프로젝트가 거의 없으며, 대금자금을 지연하거나 수입 허가권이나 사업권으로 대체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외국기업의 참여가 어려움
- 일반적으로 도로, 교량 등 공공 프로젝트는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산하 공공사업부서에서 직접 시공
- 최근 인도, 일본, 중국, 태국 고위급 인사가 미얀마를 방문하여 정부 측과 면담을 통해 인프라 지원 의사 표현
- 인도 : 2012. 5월말 정상회담에서 5억불 규모 차관지원 및 인도 동부와 태국 서부를 잇는 3개국 고속도로 건설 합의
- 일본 : 2012. 4월 정상회담에서 530억불 규모 부채 탕감 및 차관지원 재개를 협의했으며, 향후 GMS 국가의 인프라 현대화 사업에도 75억불 규모 ODA 지원 예정
- 중국 : 2010년 이후 교통 인프라 부문에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
태국-미얀마-인도 3개국을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 계획 중
- 중국철도그룹은 뤼리(中)-무세-라카인-짜옥푸를 연결하는 총연장 810km 건설 프로젝트 추진 중
- 태국 : 2012. 5월말 다웨이 해양허브 프로젝트에 총 10억불 규모(203건) 지원 승인
- 1단계(2012-2015)로 다웨이 남부지역 중심으로 태국연결 4차선 도로, 석탄 화력발전소, 주거 및 상하수 시설 건설.
- 2단계(2016-2018)는 배수시설 및 8차선 도로 확장, 쇼핑센터 건설
- 3단계(2019-2020)는 다웨이 북부지역 중심으로 태국 연결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등 확장 계획

- 건설시장 전망

-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에게 민간 소유의 토지 임차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할 예정으로 부동산 개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현재 외국인 투자 법인은 정부 소유의 토지만 임차 가능
- 건설부는 2013년 동남아시아게임 개최를 위해 주요도시의 교통 인프라 및 호텔, 병원, 체육관을 확충할 계획
- 관광부는 호텔 확충을 위해 2011-2015년 전국에 16,700실 호텔건설 계획 발표 (2012년 목표 : 양곤과 만달레이 1,000실, 바간 500실, 인레이 500실 호텔 건설)
- 2011. 12월 대통령 지시로 “양곤 30년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 최근 대통령 특별지시로 양곤 주요 교차로(레단, 쉐고다잉, 버잉라웅, 탐웨이) 4개 지역에 고가도로 건설 추진
- 경제 개방으로 인한 외국인관광객 증가, 2013년 동남아시아게임 개최, 2014년 아세안 의장국 수행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가도로, 스카이 트레인(Sky Train) 등 교통 인프라 구축 예정
- 40,000-50,000톤급 선박이 접안 가능한 심해항구 건설을 추진 중
- 유력 후보지는 딸라와, 짜옥푸(중국과 연결되는 미얀마 종단 파이프라인 시작점), 다웨이(태국, 싱가포르와 연결되는 국제무역항 예정지)가 거론
- 2011. 11월 힐러리 국무장관의 미얀마 국민 방문 이후, 경제제재 해제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전망
- 2012. 5월 22년만에 미국은 미얀마 주재대사를 지명했으며, USAID 사무실 개설, 수출입 및 금융 제재 해제 등 검토 중
- 2012. 6월 세계은행은 양곤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금융지원 검토 중
- 금년 우리나라를 포함 인도, 일본, 중국, 태국 등 다수 국가의 고위급 인사가 미얀마를 방문하여 인프라 사업 지원 의사 전달

- 건설 수주 동향 : 해외 건설 수주실적('12. 5. 31 기준)
 - 최초 진출 : '80. 9, 현대건설, 버마 나웅카트 다목적댐 공사(9.4백만불)
 - 총 수주액 : 14개 업체, 14건, 15.4억불
 - 주요공사 : 2010년, 현대중공업, 서부 60km 해상 SHWE 가스전 공사, 13.8억불

『미얀마 수주추이』

(단위: 백만불)

구 분	합 계	~'07	'08	'09	'10	'11	'12.5
건 수	14	8	-	1	1	4	-
금 액	1,541	129	-	0.4	1,388	3	-

- 진행 사업 목록

- 시공중 주요 공사 : 1개 업체, 1건 13.8억불

(단위 : 백만불)

업체명	사업명	발주처	계약액	기간
현대중공업	서부 60km 해상 SHWE 가스전 공사	대우이터네셔널 미얀마 탐사&생산	1,038	2009/10/15 2013/04/01

※ 건중이엔씨, 벽산파워, 효동개발,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 등 하도급사 참여 중

- 현안 및 애로사항

(지나친 수입억제 정책)

- 외환부족을 이유로 수입시 모든 품목에 대하여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양곤에서 네피도로 행정수도를 이전함에 따라 네피도에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 후 최소 2주 소요 (품목에 따라 수입 금지 조치)

(현지법인 설치 불가(건설, 무역, 엔지니어링 등))

- 외국 업체의 현지법인 설립 및 연장이 불가능하며 현지인 명의로 법인 설립, 사업의 불확실성 및 체류비자 문제로 대두
- 다만, 국제입찰가인 경우 프로젝트 건별로 허용(사업 종료 후 폐쇄)

(금융상의 제한)

- 서방의 경제 제재로 원칙적인 달러 송금 불가

(이중 가격 및 환율 구조)

-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하여 공공요금(전기, 통신, 수도, 로컬구간 항공료, 진료비 등)을 내국인과 달리 달러화로 징수하여 차별적인 요금 적용(최소 5배에서 최대 70배)
-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이 상이(200배 차이)에서 오는 부담감도 있음

(현지 합작파트너 선정의 어려움)

- 외국기업들이 현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와의 합작이 필수이나 유력한 현지 업체가 거의 전무한 관계로 섭외가 힘들며, 법인설립시에도 현지인 명의를 빌려 설립하여야 하는 관계로 사기 등 영업상 애로요인 발생 상존

- 진출확대 방안

- (무상 및 유상원조 확대를 통한 시장 선점)
 - 최근 인도, 일본, 중국은 향후 대 미얀마 유무상 차관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정부도 무상원조 규모를 4배 확대할 예정
 - 무상원조 뿐 아니라 유상원조 지원도 재개하여 시장선점 필요
- (민간차원의 시장선점을 위한 지원 필요)
 - 민간 차원에서 해외건설협회 주도의 외교적 노력과 진출기업 밀착지원 필요
 - 인프라펀드 등 각종 펀드를 이용한 투자도 우회적으로 활용
 - 시장개척 지원사업 선정 시, 미얀마 프로젝트 지원 확대
 - 기진출 한국계 현지기업 활용

- 현지 법률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현지기업으로 활동하는 유력교민 활용
- 정부 관료들과 인맥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공조를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 풍부한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험전수

(한류 활용)

- 현재 드라마, 대중가요 등 한류가 급소도로 확산되고 있어 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구사 필요

(인접국 민간 및 공기업과 전략적 제휴)

- 미얀마의 영향력이 강한 태국, 인도의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을 활용하여 합작 진출 모색
- 특히 태국은 미얀마의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어 있어 전략적 제휴 시 엄청난 시너지 효과 기대

(다자개발은행(MDB) 주도의 GMS사업 적극 참여)

- ADB 지원으로 도로, 철도 분야에서 GMS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나 정치적인 문제로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세계은행에서 미얀마 사무소 개설을 준비 중이고 각국의 ODA 지원도 늘어날 전망으로 향후 프로젝트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전략적인 참여 방안 모색 필요
- 제 3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동반 진출도 고려

3. 한-미얀마 ODA 지원현황

○ 유상원조(EDCF) 현황

- 對 미얀마 유상원조 기본입장
 - '87~'11년간 총 84.7백만불 지원
 - '05년 이후 EDCF 승인 중단, 민주화 진전 이후 EDCF 지원 재개 검토
(* 미얀마 측은 '05.10월 전력 및 통신분야 2개 사업 EDCF 지원 요청)

- 사업별 지원 실적 (단위: 만불)

사업명	승인액	지원승인
전화통신망 확충사업	780	'92.6월
송배전망 확충사업	1,620	'94.7월
양곤항 컨테이너 야적장 건설사업	1,500	'96.1월
④ 철도차량 구매사업	2,000	'96.10월
⑤ B형 간염백신 구매사업	1,260	'00.8월
⑥ 전자정부 구축 사업	1,250	'04.7월
소계(6건)	8,470	

- 무상원조(KOICA) 현황

- 對 미얀마 무상원조 기본 입장
 - 미얀마 민주화 및 인권상황, 국제사의 동향, 최빈국 지위 등을 고려, 교육, 농촌 개발, 환경분야 등 인도적 성격의 지원(grant)에 한정
 - '12.5월 이명박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 이후, 무상원조 규모 4배 확대 지원 발표

- 연도별 지원 실적 : '91-'11년간 총 35.4백만불 지원 (단위: 만불)

연도	'91-'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지원액	477	65	157	146	205	341	279	160	613	349	400	352	3,544

- 사업별 지원 실적('95~'11) (단위: 만불)

구 분	기 간	총액
①라쇼대학 시설개선 사업	'95-'96	50
②잠업개발 사업	'97-'98	35
③정보통신개발마스터플랜수립 지원사업	'04-'05	95

④산림녹화시범단지 조성 사업	'98-'00	18
⑤중부지역 산림녹화시범단지 조성사업(2차)	'04-'05	30
⑥따가야 지역 직업훈련 건립	'07-'09	23
⑦전력망진단 개발조사	'01-'02	40
⑧송전망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03-'05	100
⑨전력계통 운영 및 보호 시스템 구축사업	'06-'08	140
⑩북부 농업관개기술 역량강화사업	'08-'10	200
⑪중부건조지역 산림녹화산업(3차)	'08-'10	150
⑫홀레구지역 농촌개발 사업	'08-'10	200
소 계(프로젝트 사업)		1,078
①물자자원 18건		124
②긴급원조 8건		288
③국내초청연수 1,125명		537
④봉사단 파견 177명		484
⑤의료단 파견 22명		78
⑥전문가파견 22명		33
⑦민간단체 10건		31
소 계(기술협력 사업)		1,575

- '11년 지원계획 : 총 352만불 지원

농촌개발 및 직업훈련 분야를 중심으로 '13년까지 13백만불 지원 (단위: 만불)

구 분	기간	'11년 사업비
①자동차정비직훈련 설립사업	'10-'12	1636.7
②아세아 사이버대학설립을 위한 CLMV 역량강화사업	'10-'12	40.6
③농산물 수확 후 기술관리 지원사업	'11-'13	1.7
④전염병 연구소 역량강화사업	'11-'13	1.7
⑤구제역 방지시스템 개선사업	'11-'13	1.7
소 계(프로젝트 사업)		209.4
국내초청연수		37.3
해외봉사단파견 28명		77.3
민간단체지원		28.4
소 계(기술협력 사업)		143.0
계		352.4